

디지털 시대, 시 향유 방식과 시 교육의 방향*

최미숙**

〈 차례 〉

- I. 서론
- II. 시 향유 방식의 변화
 - 1 전자게시판 시
 - 1) 작가와 독자 형식의 변화
 - 2) 모델에 따른 키치 시 양산에 대한 성찰
 - 2. 멀티미디어 시: 매체언어의 시적 표현
 - 3. 핸드폰 문자 시: 매체를 활용한 시의 가능성 탐색
- III. 디지털 시대 시 교육의 방향
 - 1. 시적 취향의 질적인 전환을 위한 교육
 - 2.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디지털 시 교육
- IV. 결론

I. 서론

전자 기술과 미디어의 발달은 여러 국면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 이 연구는 2006학년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지원으로 2006년 12월 14일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보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임.

**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1) 영화 「외출」은 2005년 9월 7일에 개봉되었으며, 소설 「외출」은 2005년 8월 23일에 출간되었다. 약 2주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소설 「외출」은 영화 「외출」을 바탕으로 하여 쓰여진 작품이다. 영화가 소설화된 예는 「동감(허인아, 출판시대)」의 예에서 보듯 이미 존재하던 현상이다. 하지만 「외출」의 경우, 문단의 중견 작가(김형경)가 작품을 썼다는 점, 또 우리나라 유명 출판사(문학과지성사)에서 출판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있으며, 특히 문학을 읽고 창작하고 향유하는 방식 또한 변화시키고 있다. 소설이 영화화되던 단계에서 나아가 영화가 소설화되는 현상도 등장하고 있다. 영화 「외출」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소설 「외출」이 등장했으며, 최근의 소설은 인물 설정이나 상황 설정, 그리고 등장인물의 대화 방식이 영화 혹은 드라마의 그것과 유사한 경우가 많다. 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시의 경우에도 영화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영화 「편지」는 황동규의 시 「편지」를 모티프로 한 것이며, 영화 「301·302」의 모티프가 된 것이 장정일의 시 「요리사와 단식가」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미디어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들의 일상적 삶에서 문학이 존재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우리 생활에서 시를 읽고 즐기는 방식의 변화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그 한 예로 시 낭송 카드를 들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www.epost.go.kr)에서는 2006년 말 연하장 중 하나로, 황금찬 시인의 시 「새 아침에」를 성우 배한성씨의 음성으로 녹음한 시 낭송 카드를 국내 최초로 제작하여 판매했다. 시 낭송 카드를 펼치는 순간 시 낭송이 울려 퍼지도록 고안되었으며, 시 원문은 카드 속지에 실려 있다. 카드를 펼쳐 시 낭송을 들으면서 시 원문과 동시에 카드에 적힌 새해 인사를 읽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 외에도 시를 읽고 즐기는 방식의 변화는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그림을 동반한 시화집의 출판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시 낭송의 활성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시의 생산과 유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집 속에서 문자로만 존재하던 시가 그림, 음성, 소리, 이미지, 동영상 등과 결합하면서 그 존재 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문학 텍스트를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대 사회는 그러한 텍스트를 읽고 쓰고 즐길 수 있는 문학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문자, 음성, 소리, 이미지, 동영상 등을 결합하여 하나의 텍스트로 생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새로운 시 텍스트를 생산하고 수용하며 향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매체언어를 통한 표현 방식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본고의 전제이다. 매체언어는 다양한 매체 텍스트에 실현된 언어의 특성에 주목한 용어로, 기존의 언어가 주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매체언어는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음성, 문자, 소리, 이미지, 동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통합되면서 의미를 형성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새로운 매체에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다른 기호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매체 언어로 표현된 매체 텍스트는 의미를 생성하는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처럼 상세한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최미숙, 2007). 매체언어의 등장은 현대시의 모습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문자 언어를 통해서 시를 쓰고 읽던 단계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매체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를 생산하고 읽고 유통시키면서 즐기는 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변화가 시집을 통해 시를 읽으면서 즐겼던 문화 자체를 대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새로운 방식의 출현으로 예전에 비해 시를 접하는 방식이 좀더 다양해졌고, 이는 시교육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변화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며, 나아가 시교육적 관점에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디지털 시대에 시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관점의 시 교육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시를 향유하는 방식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시 교육에서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시 향유 방식의 변화

우선 시교육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시 향유 방식의 변화를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논의하고 그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 고자 한다. 시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시의 생활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시 향유 방식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전제이다.

1. 전자게시판 시

1) 작가와 독자 형식의 변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의 생산 및 유통, 소통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 변화는 문학 작품의 창작과 수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생산’, ‘저장’, ‘유통’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형식의 문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일차적인 예로 우선 2000년을 전후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던 하이퍼텍스트 문학의 등장을 들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 문학은 기존의 작가 개념과 독자 개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공간에서 작가가 자신의 텍스트를 인터넷에 개방하고 실시간으로 제기되는 독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작가와 다르며, 또 독자들은 작가에게 끊임없이 고쳐 쓸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텍스트의 의미 구축 작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독자(최동호·이성우, 2003)라는 특성을 지닌다. 하이퍼텍스트 문학은 디지털 시대에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는 기대를 모은 바 있고, 여러 곳에서 하이퍼텍스트 문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시의 경우 대표적으로 문화관광부 문학분과위원회가 주관한 ‘언어의 새벽: 하이퍼텍스트와 문학’²⁾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렇듯 2000년대 초에 실험적인 차원에서 활기를 띠었던 하이퍼텍스트 시의 창작은 현재 거의 중단된 상태다.³⁾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거의 사양길에 접어든 것이다.

이와 다른 측면에서 시의 생산과 유통 방식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인터넷의 전자게시판을 활용한 시의 생산인데, 여기에서는 전자게시판 시로 명명하고자 한다. 전자게시판 시는 기존의 문자로 표현하던 시 표현 방식을 대부분 그대로 원용하지만 생산과 유통 방식의 측면, 즉 인터넷 전자게시판에 시를 표현하고 유통시킨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인터넷의 발달은 시 유통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시 창작 사이트와 카페 등의 등장이다. 블로그, 카페뿐만 아니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스스럼없이 시를 올리는 일반인들도 많아졌다.

전자게시판 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시인과 독자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던 시 향유 주체의 형식에서 벗어나 작가와 독자의 구분 없이 누구라도 시를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관계로 변화한 것이다. “전자 글쓰기가 저자와 독자의 구별짓기를 와해시키(M. Poster, 1998:

2) 이 사이트(<http://eos.mct.go.kr>)에 접속하여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자신의 시구를 작성하면 모두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하이퍼텍스트 시를 이루게 된다고 한다. 이 사이트는 2000년 4월 김수영 시인의 「풀」을 화두로 삼아 하이퍼텍스트 시를 시도했다. 현재 이 사이트는 폐쇄되어 인터넷상에서 검색이 불가능하다. ‘언어의 새벽’ 사이트에서 가능했던 하이퍼텍스트 시 창작 방식에 대해서는 최동호·이성우(2003), 이용욱(2004)을 참조할 것.

3) 류철균(2006)은 하이퍼텍스트 문학이 다중매체문학의 대안이 되기에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하이퍼텍스트 문학이 독자에게 콘솔게임과 똑같으면서 콘솔게임의 화려한 그래픽과 게임음악, 극적인 모션들이 없는 ‘열등한 게임’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시장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114)”는 현상이 시 분야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독자의 경우 기성 시인의 시를 읽는 역할에 한정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전자게시판에 시를 직접 쓰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 게시판 시의 창작 활동은 시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성 시인들도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시인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시 창작 교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⁴⁾ 하이퍼텍스트 문학의 경우 일반인도 참여했지만 주로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시도했던 것이라면, 전자게시판 시의 창작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로 일반인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이루어낸 변화이며, 이는 인터넷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시를 쓰고,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전자게시판을 통한 시 활동의 확산은 우선 소수의 시인이 다수의 독자를 향해 시집을 출판함으로써 시를 전달하거나 유통시켰던 방식으로부터의 변화를 가져왔다. 독자를 향한 시인의 창작 행위뿐만 아니라 독자가 새로운 주체가 되어 또 다른 독자를 향해 시를 전달하고 읽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컴퓨터 장비 구입비와 인터넷 접속 요금 청구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시의 생산자이자 에이전트이자 편집자이자 독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⁵⁾ 많은 사람들이 ‘그 많던 독자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라고 탄식했지만, 기실 그 독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앞에 있었던 것이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를 쓰고 독자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특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자게시판 시는 하이퍼텍스트 문학과 유사한 측면이 있

4) 안도현 시인의 홈페이지에 개설된 ‘시 창작 교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5) 이 부분은 M. Poster(1998: 63)의 다음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컴퓨터 장비 구입비와 전화 요금 청구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야기의 생산자이자 에이전트이자 편집자이자 청중이 될 수 있다.”

다. 하지만, 하이퍼텍스트 문학이 주로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창작 과정 자체에 참여하여 시구를 남긴다는 특성을 지닌다면, 전자게시판 시는 자신이 시를 써서 인터넷에 올리고 독자와 감상 평을 통해 상호 소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하이퍼텍스트 문학이 작가들로부터 점차 멀어져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게시판 시의 창작과 수용 및 소통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모델에 따른 키치 시 양산에 대한 성찰

전자게시판 시의 활성화는 좀더 쉽고 편하게 시를 쓰고 즐길 수 있도록 했지만 우리가 성찰해야 할 문제를 발생시킨 것도 사실이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시를 쓰면서 시에 대한 반성적 자의식보다는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표현하는 시를 양산하게 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몇 십 번 숙고하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 정제된 시를 쓰거나 발표하던 기존의 시 창작 혹은 출판 방식과는 다른 시 생산 및 유통 방식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출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 창작은 다른 시를 쉽게 모방하고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시를 선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시, 이미 알고 있는 시와 유사하게 표현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콘텐츠의 연속적 생산 과정은 ‘모델에 따른 탄생’을 통해 약간씩만 ‘변화’할 뿐이다. 마치 일정한 틀로 봉어빵을 찍어내듯이, 유전적인 암호에 따라 비슷한 것들을 연속 생산하는 모델에 의존하게 되었다(A. Darley, 2003:80)”라는 내용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전자게시판 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이 되었다. 전자 글쓰기가 작품의 정전성과 심지어 학문 분과의 경계에 도전하는 새로

운 형태의 텍스트를 출현하게 만든다는 현상(M. Poster, 1998)이 시 분야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키치(M. Calinescu, 1993) 시의 양산’이라는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키치 시가 인터넷을 만나면서 좀더 다양한 형태로 양산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⁶⁾ 이와 관련하여 2005년 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귀여니(본명: 이윤세)의 시집 『아프리카』 출판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명심해.

하루만에 당신에게 반했다는 그 사람은
다음날 또 다른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걸.

- 「명심해」⁷⁾

신발 끈 더 꽉 묶어.

우리가 함께 할 코스는
백미터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야 이 멍청아,

- 「코스」⁸⁾

귀여니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시를 모아 『아프리카(2005)』라는 시집을 출판했다. 이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수천 개의 댓글을 올렸는데, 대부분의 댓글 형식이 귀여니의 시 형식을 차용한 것이었다. “명심해/양치질은/하루에/세번씩(제목: 양치질)”, “귀여니/네덕분에/한민족/우리동포/전부다/시인되네(제목: 전국민의 시인화)”, “성남시/수원

6) 키치 시의 특성, 키치 시와 문학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미숙(1995)을 참조할 것.

7) 귀여니 미니홈피, http://minihp.cyworld.nate.com/pims/main/pims_main.asp?tid=24442636

8) 귀여니(2005), 『아프리카』, 반디, p.178.

시/서울시/안양시/(제목: 시)⁹⁾ 등 대부분의 내용은 귀여니 시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 마디로 별다른 것 없는 일상적인 생각을 편하게 쓴 것일 뿐 제대로 된 ‘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귀여니 시의 시적 발상은 거의 자동적인 연상작용으로 추출된 것이며 그로 인해 아무런 인지적 저항 없이 모두에게 쉽게 수용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으며 “연상체계의 진부함(A. Moles, 1995:140)”이라는 키치 시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시가 우리에게 새롭게 던지는 의미를 되새기거나 혹은 그 시의 언어 표현을 음미하면서 자신의 사유나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와 만나기보다는 미리 소화된 상태로 제공되는 시를 그저 ‘소비’하기만 하면 된다. 모델에 따른 키치 시의 양산과 시의 소비는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을 통한 시 쓰기의 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낙서장에 메모를 하듯 쉽고 편하게 게시판에 시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수많은 인터넷 게시판과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독자를 향해 표현된 낯익은 시를 만날 수 있으며, 낯선 사람의 인터넷 게시판에서 쉽고 편하게 시를 한 번 읽고 지나간다.

이는 ‘시의 생활화’의 측면에서 보자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육체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은 채, 서로 주고받는 기호만으로 메시지와 시를 교환하는 인터넷 공간은 키치 시를 양산하는 또 하나의 장이 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제2의 자아나 다름없는 아이디(ID)를 통해 자신을 쉽게 위장할 수 있으며, 억압된 자아를 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 현실 생활의 육체로부터 벗어나 가상의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서와는 다른 페르소나를 갖는다. 아이디와 아바타 등을 통해 자신의 페르소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며 때로는 다성

9)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2079705&menu=nview

적인 페르소나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페르소나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시 모델에 따라 현실에서보다는 좀더 편한 방식으로 시를 양산하는 것이다.

“글쓰기의 한 형태로서 메시지 서비스는 자율적이고 이성적이고 고정된 개인들이 아니라 유희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다중적인 자아를 길러낸다(M. Poster, 1998: 115).”라는 논의는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통해 활성화된 글쓰기의 한 측면, 나아가 시 쓰기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경우라 하겠다.

귀여니의 시 역시 이러한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시를 즐기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는 있지만, 시를 진정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좀더 성찰적인 시 역시 읽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귀여니 시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멀티미디어 시: 매체언어의 시적 표현

최근 시와 삽화, 시와 사진, 시와 음악과 낭송 등의 결합이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시와 그림의 결합, 시와 낭송의 결합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것이었다. 시에 맞는 그림을 배경으로 시를 쓰고 패널로 만들어 전시하던 시화전, 그리고 시의 분위기에 맞게 낭송하던 시 낭송회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그림은 시를 위한 배경화면 정도의 역할로 그쳤던 것이 사실이며, 시 낭송 역시 운율에 맞추어 시를 낭송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등장하는 시들은 그림이나 삽화가 예전처럼 단순한 배경화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자, 음성, 소리, 이미지, 동영상 등이 결합하여 한 편의 시 텍스트를 형성¹⁰⁾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매체언어의

이러한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시를 즐기고 유통시키고 있는 바, 각종 영상시, 동영상시¹¹⁾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낭송시 등의 멀티미디어 시가 그것이다. 매체언어가 지니는 언어의 통합성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시를 표현해내는 것이다. 이것은 웹의 등장으로 인해 가능해진 현상이다. 웹의 등장과 함께 사진 파일과 목소리 파일을 ‘텍스트’ 속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저자들’이 그러한 링크들을 ‘텍스트’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M. Poster, 1998).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시 편지를 주고받는 등 새로운 형태의 시 향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영상시의 등장은 새로운 차원을 개척하고 있다. 기성 시인들 역시 이러한 시 향유 문화에 동참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인터넷을 통한 문학 집배원 역할을 찾아 나선 도중환 시인을 들 수 있다. 도중환 시인은 영상과 음악을 결합한 영상시를 독자들에게 e-메일로 배달하고 있다.¹²⁾ 주로 기성 시인들의 시를 그림이나 사진,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해 움직이는 이미지 플래시

10) A. Burn & J. Leach(2004)은 매체언어의 이러한 특성을 ‘복합 양식의 언어(multimodality)’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mode(언어 양상)와 media(매체)가 함께 작용하면서 특정 방식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대의 텍스트 생산자, 수용자들은 개별적인 양상(즉 writing, visual design, music 등)을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것들을 통합된 형식으로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은 이러한 복합양상 형식(multimodal form)의 좋은 예라고 한다.

11) ‘멀티포엠(multipoem)’을 표방하며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http://www.multipoem.com>)에서 멀티포엠 동영상 시를 감상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멀티미디어 시란 이러한 형식의 멀티포엠보다는 일반인들이 즐기면서 유통시키는 영상시, 동영상시, 낭송시 등을 포괄하는 범주로 정의하고자 한다.

12)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나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문학나눔사업추진위 홈페이지나 도중환 시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문학 집배원 도중환 시인이 배달하는 시를 보고 들으면서 감상할 수 있다. 문학나눔사업추진위원회, “문학 나눔”, 2006. 12. 19. <www.for-munhak.or.kr>. 도중환, “도중환의 시”, 2006. 11. 16. <<http://poem.chart.org>>. 2007년 5월부터는 안도현 시인의 시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로 제작한 것인데, 시인의 육성이나 성우 등의 낭송을 곁들여 독자들이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 시 18편을 배경음악과 함께 낭송한 낭송시집을 CD-ROM으로 제작하기도 했으며(도중환, 2006), 시 배달을 하면서 작성한 플래시 동영상을 모아 낭송시집으로 발간했다(도중환, 2007). 또 창비에서는 창간 40주년을 맞아 낭송시집 『언어의 촛불들이 피어날 때』를 제작했다. 고은, 신경림, 김정환, 나희덕 등 25명의 대표작을 육성으로 담은 낭송시집 CD는 컴퓨터에서 영상이 담긴 플래시로 감상할 수 있고, 오디오에서도 음악과 어우러진 낭송을 간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강은교 외, 2006).

이러한 변화는 시집 출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른 바 시 화집¹³⁾의 등장이 그것인데, 정호승 시선집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박항률 그림, 2006)』를 보면, 시와 그림을 결합하여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이 시의 배경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하나의 기호로 존재하면서 문자와 결합하여 통합적인 새로운 의미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활자의 형태로만 출판하던 시집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일종의 매체언어를 활용한 자기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독자의 시적 취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멀티미디어 시의 등장은 최근 인터넷 독자의 시적 취향을 반영한 것이면서 동시에 시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에 대한 일차적인 해석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의미

13) 최근 출판된 시화 선집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정호승 시선집(박항률 그림),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 랜덤하우스 오세영 시화선집(오세영 그림), 『바이러스로 침투하는 봄』, 랜덤하우스 김용택 시화선집(선종훈 그림), 『언제나 나를 찾게 해주는 당신』, 랜덤하우스 안도현 시화선집(박남철 그림), 『잠들지 않은 것은 나와 기차 뿐』, 랜덤하우스 중앙.

형성에 기여하는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낭송이 결합되면서 문자로 시를 표현하거나 눈으로 활자를 읽으면서 시를 즐기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를 표현하고 읽도록 한다. 이제 독자들은 시를 특정 영상, 소리 및 음성과 통합적으로 쓰고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러한 멀티미디어 시의 생산에 일반 독자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캠코더, 영상편집기, 간단한 애니메이션 창작도구를 이용하여 일반인들도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독자들은 더 손쉽게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저작도구들을 이용하여 과거 문예창작의 습작들을 쓰듯이 이미지, 모션, 사운드, 문자가 결합된 습작물들을 창작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류철균, 2006: 82)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 교육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측면이다. 영상과 낭송과 시화의 결합이 이루어진 시 향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독자도 얼마든지 그러한 시의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시를 읽는 것에서 나아가 영상시는 시를 보면서 읽을 것을 요구하며, 낭송시는 시를 음악과 함께 음성으로 들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때로는 음악을 들으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시를 읽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제 시를 표현하고 읽는 방식의 변화를 고려한 시 교육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3. 핸드폰 문자 시: 매체를 활용한 시의 가능성 탐색

인터넷 전자게시판에 시를 올리거나 영상시를 제작할 경우에도 기존 시의 표현 형식을 원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문학 향유 방식뿐만 아니라 문학 표현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열 수 있는 한 예로 다음 시를 들고자 한다.¹⁴⁾

<시 1>

04. 5. 29 15시

두두독흥연주로
청각을예리하게스
치는메스처림,
비소릴들으며잠이
들면,자연사.

<시 2>

2004. 6. 19 22:00

인하대 술집 가시버시에서

낮은천장작고포근
한독방..교자상앞
에두고.벽에기대
머리위작은창..비
소리스며든다..
손님내혼자라면

습한날흰벽타는집
없는달팽기..같은
저소리와함께..대
취할수있을터

이 시는 핸드폰 문자 시, 즉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가 텍스트화되는 형식을 고려한 시다. 핸드폰 창의 크기를 고려할 때, 6글자에서 8글자가 한 행을 이루고, 핸드폰 창에서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분량이 하나의 연을 이루는 형식이 가능하다. 띄어쓰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표현 방식 또한 중요한 형식적 특성을 이루고 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 형식을 반영한 시 형식의 이질성과 핸드폰 문자를 읽는 익숙함이 이 시를 읽는 과정에서 묘한 긴장감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글자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의미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다시 주춤거리게 하고, 빨리 읽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시어에 두 번 이상 눈길을 두게 하는 효과를 연출함으로써 독특한 운율과 의미 형성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6글자에서 8글자만을 허용하는 짧은 시행 때문에 ‘시행걸침’¹⁵⁾ 표현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14) 인용한 두 편의 시는 상명대학교 사진학과 정중배 학생이 창작한 시이다.
15) ‘시행걸침’이라는 형식적 장치는 시의 의미 형성에 독특한 방식으로 기여한다. 시행 걸침에 따른 단절은 행 구분에 의해 강제로 끊긴 두 어휘 사이에 시간적이고 심리적 거리를 갖게 해준다. 따라서 앞 행의 의미에서 드러난 정서가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시행걸침이 지니는 통사론적 부자연스러움은 의미의 단절과 연속의 부자연스러움을 가져온다. 그 과정에서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이중의 의미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그 두 의미 사이에서의 진동은 의미의 확산을 가져오곤 한다. 시행걸침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논의는 최미숙(2007)을 참조할 것.

호흡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미의 변화가 수반되는 일정한 시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원래 핸드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움직임은 전화기 역할이다. 하지만 최근 핸드폰 기술의 발달로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음성 녹음 등이 가능해졌다. 거기에다 DMB 기능으로 인해 이제 핸드폰은 움직이는 TV 역할도 하고 있다. 음성을 통한 의사소통에서 나아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능 역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¹⁶⁾ 문자 메시지 서비스로 인해 말하고 듣는 핸드폰에서 쓰고 읽는 핸드폰의 역할이 부각된 것이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작성할 때 다른 매체와는 구별되는 몇 가지 제한 사항 - 그것은 주로 표현 공간 및 용량의 제한과 관련이 있다. - 이 있는데, 이것이 핸드폰 문자 시 형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핸드폰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행을 6글자에서 8글자만 허용하고, 한 화면에 문자 메시지를 쓸 수 있는 표현 공간을 80바이트로 제한함으로써, 시상을 짧으면서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력의 번거로움과 용량 때문에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를 생략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모티콘의 활용도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듯 문자 메시지의 표현 방식의 특성은 제한된 공간에서 표현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생략과 축약을 자주 활용하게 되며, 이는 언어 표현에서 생략과 비약의 특성을 보이는 시적 표현 방식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16) 핸드폰 문자 메시지는 흔히 SMS라는 약자로 사용되는데, SMS란 Short Message Service의 앞 글자에서 따 온 것으로,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초의 문자 메시지는 1992년 영국에서 송신되었으며, 처음에는 핸드폰의 부수적인 기능이었으나 현재 대표적인 문어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의 의사소통적 기능에 자세한 논의는 최정은(2005)을 참조할 것.

“문자 메시지 언어는 게시판, 이 메일, 채팅 등의 통신 언어와 비교할 때 축약과 생략이 가장 발전된 단계에 이르고 있다(최정은, 2005)”라는 논의 역시 핸드폰 문자 메시지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특히 직사각형의 화면 창에 텍스트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는 특성은 극도의 축약적 문자 표현을 요구하는 전보(電報)¹⁷⁾와는 다른 특성이기도 하다. 앞에서 인용한 시 역시 이러한 핸드폰 문자 메시지의 작성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작한 시로 볼 수 있다.

이제는 핸드폰을 통해 단순한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동영상 등의 멀티 메시지도 가능해졌다. 문자를 그림, 동영상 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으며, 핸드폰 영상기도 가능하다. 핸드폰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 휴대폰은 약 300여개의 문자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핸드폰 시집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핸드폰 시집에 저장된 시를 선택하여 읽고, 또 누군가에게 핸드폰 시를 전송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날 말이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시 향유 방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시는 시를 일상적으로 읽고 쓰고 창작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 교육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동시에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시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17) 일반적으로 전보의 경우 국문 20자까지 기본 요금이며, 20자를 초과할 경우 5자마다 초과 요금을 내야 한다. 전보문 자체의 속성이 축약적 표현을 요구하지만, 또 초과 요금제도 때문에 전보문을 작성할 때 극도의 축약적 표현을 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Ⅲ. 디지털 시대 시교육의 방향

1. 시적 취향의 질적인 전환을 위한 교육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소통을 하고 정보를 접하고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현대 생활에서 시 교육이 이제까지 논의한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과제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일상인이 시를 향유하고 시를 생활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인터넷을 활용한 패러디 시 창작(최병우·이채연·최지현, 2000)을 강조하는 등 그 활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이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시 교육이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무엇보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시 창작은 시 교육의 경우에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전자게시판 시는 독자로만 존재하던 사람들을 시 창작의 공간으로 끌어들었고, 일상인들이 문학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만들거나 확장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시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 교육의 차원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시의 생산과 유통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시의 생활화를 위해 미디어를 활용해 시를 올리고 감상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전자게시판에 시를 쓰고,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와 있는 시를 읽고 상호 감상 평을 통해 상호 평가하는 방식은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시의 생산, 공유, 소통이 좀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답글 달기 형식을 통해 학생 간 상호평가를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상

호 평가의 기준이 바로 시 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중요한 교육 내용이라는 점이다. 그 기준이 바로 우리에게 좀더 의미 있는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며, 다른 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음 내용과 관련을 맺는다.

시 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다른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양산되는 키치 시에 대해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키치 시의 양산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귀여니 시를 둘러싼 네티즌의 반응에서 볼 수 있듯, '의미 있는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 네티즌이 성찰적 태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에 이루어진 시 교육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 Moles(1995:91)은 오늘날 사회에서 키치가 기본적으로 맡고 있는 역할 중 하나가 교육적인 기능이며, '좋은 취미'를 얻기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나쁜 취미'를 하나하나 다양하게 경험해 나가면서 그 결과로서 자신의 취미를 정화시켜 '질의 피라미드'의 정상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키치 시적인 취향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교육의 과제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 교육을 통해 점차 다음 단계의 창작을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귀여니 시에 대해 네티즌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습작 노트에 머물고 있어야 할 시가 당당하게 '시집'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네티즌은 전자게시판 시와 시집으로 출판되는 시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시라면 나도 시인이다'라는 네티즌의 주장에는 취미삼아 쓰는 시 혹은 습작으로서의 시와 좀더 의미 있는 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동시에 바람직한 의미의 시란 적어도 의미 있는 문학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인식도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시를 습작 시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 습작 시를 즐겨 창작할

수 있고 올릴 수 있지만, 좀더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후속 작업과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며, 네티즌이 인식했던 것은 ‘질의 피라미드’ 아래 단계의 시와 정상 단계의 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와 의미 있는 시 사이에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시 교육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자계시판 시에 대한 논의에서 보았듯, 모델에 따른 키치 시의 양산은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현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작 문제는 시 창작 단계에서 과도기적으로 거쳐야 할 모방과 개작의 단계로 그치지 않고 고착화되는 것이 문제이며, 그것을 극복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인용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이버 매체의 충격은 언어의 흐름을 정보의 속도 속에서 조절한다. 하나의 언어 속에 깊이 머무르게 되지 않는 현상들이 보편적인 언어상태로 나타난다. 옛날 정지용 같은 시인은 어떤 이미지나 언어에 망각의 깊이를 집어넣었다. 그것이 시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언어의 금욕주의는 사라졌다. 상상과 논증, 체험, 의미의 이해를 위해 필요했던 시간들이 욕망의 재빠른 달성을 위한 속도 속에서 무너졌다(신범순, 2000:27).

이 인용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우려했던 문제와 연결된다. 시적 사유가 ‘속도’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시가 아니라 언어의 깊이와 함께 반성적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는 시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한, 미디어 시대 시의 생활화는 표피적인 욕망의 충족만으로 지속될 우려를 안고 있다.

김수영의 「풀」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시도한 하이퍼텍스트 시에 대해 “작업의 결과는 참담한 모습(신범순, 2000:21)”을 드러냈다고 평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디어의 활용에 따른 새로운 시적 인식은 보이지 않고 단지 “수많은 시인들이 가치를 치는 시들은 단지 몇 가지 단어들의 공유라는 연관성만으로 엮인 채 각각 고립된 섬으로 흩어져(신범순, 2000:21)” 버릴 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한다.

물론 시적 취향의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자 사회적인 것이며, 특히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는 다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가 접하는 시들이 ‘자기 성찰의 관점에서’ 각기 질적 차이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가 시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 질적 전환을 도와줄 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으로 필요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유형의 시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될 것이다.

2.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디지털 시 교육

다음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시 혹은 영상시의 제작 역시 시를 읽고 창작하기 위한 교육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문학계에서도 디지털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독자와 만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다. 온라인 시 감상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많은 독자들은 이제 시집보다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시를 접하고 감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도서출판 창비에서는 도중환 시인의 컴필레이션 시집(시인들의 시를 가려뽑은 시집) 『꽃잎의 말로 편지를 쓴다』 출간을 기념해 ‘UCC 시 낭송 축제’를 연다고 한다. 독자들이 ‘문학집배원 도중환의 시배달’ 사이트에 좋아하는 시를 직접 낭송하거나 시 해설을 담아 동영상, 음원 파일, 이미지 파일 등으로 올리는 이벤트다.¹⁸⁾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은 시를 즐

기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 교육의 차원에서 영상시를 제작하는 교육에 대한 논의(한귀은, 2006)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디지털 시 교육 내용, 디지털 시 교육 방법, 디지털 시 교육에서의 평가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시에 맞는 영상을 선택하는 과정, 시에 맞는 목소리를 녹음하는 과정은 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디지털 시 교육에서 표현이나 제작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제작 과정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며, 매체언어로서의 시어의 특성을 고려한 창작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Buckingham은 매체언어에 관한 학습을 위해 “미디어는 생각이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언어의 서로 다른 형태를 어떻게 이용하는가(2004:99)?”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시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선택하는가, 어떤 어조로 낭송하는가 등이 부차적인 요소로 물러 앉는 것이 아니라 시의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각 언어의 어떤 특성과 어떤 형태를 음성 혹은 문자와 통합하여 시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참고로 영상시 제작 수업은 언어를 영상화하는 문제와 영상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활자와 영상이라는 매체의 차이가 시의 해석을 어떻게 바꾸는가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스가야 아키코, 2001). 이를 위해 영상시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존의 시에 영상을 덧붙이고 그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낭송을 하는 방식, 그리고 자신이 쓴 시에다 이미지, 음악 등을 결합하여 영상시를 제작하는 것은 유용한 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

18) 문학집배원, “도중환의 시 배달과 함께 하는 UCC 시낭송 축제”, 2007. 6. 4.
<<http://cafe.daum.net/sivaedal>>.

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전자게시판을 활용한 시, 영상시뿐만 아니라 매체의 특성을 시 형식으로 접목시킨 시, 예를 들면 새로운 형태의 핸드폰 문자 시 역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창작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창작 교육을 강조하면서 창작 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기실 창작 교육 내용 대부분은 개작, 모작의 형태에 머물고 있다. 창작 교육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 실정인데, 그 대안의 하나로 디지털 시의 이해와 표현 교육을 도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 경우, 앞서서도 논의했듯 개작이나 모작의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독창적인 멀티미디어 시를 표현하는 활동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우리 생활이 변하면서 문학 역시 변화를 거듭해왔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일기장에 이모티콘이 등장하고, 몇 마디 말보다 여러 가지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방식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다. 단순한 말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담아낼 때, 그것은 의미 있는 표현 형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핸드폰 문자 시를 쓰고, 전송하고, 이에 대한 답 메일을 보내는 활동은 매체를 활용하여 시를 생활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시교육에서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 형식을 시적 효율적인 시적 표현으로 활용하는 방안, 함축적인 시어를 활용하는 방안, 운율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결론

이 연구는 미디어의 발달이 우리의 문학적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에 대해 시 교육이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전자게시판 시의 활성화, 다양한 멀티미디어 시의 시도,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 창작 시도는 그 동안 시인, 시집 중심의 시 소통 방식에 일대 전환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자도 시 소통의 주체로 서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시의 생활화'라는 시교육의 목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서 전자게시판 시를 즐겨 읽고 쓰는 생활, 그리고 다양한 영상시, 동영상시, 낭송시 등의 활성화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핸드폰 문자 시는 미디어가 시의 형식을 적극 규정하고 새로운 형태의 시 표현 및 유통 방식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디어를 활용한 시의 생활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제 독자들은 서점에 가서 인쇄된 시집을 사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시를 즐겨 읽는다. 시 교육에서는 시의 새로운 소통 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시의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좀더 의미 있는 활동을 구안하기 위한 시교육을 기획해야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할 수 없는 것 혹은 디지털 시대 시를 좀더 의미 있게 향유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사이버 로봇 시인의 양성이 아니라 숨쉬는 인간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시를 즐길 수 있도록 시 교육을 기획해야 하는 것이다.¹⁹⁾

* 본 논문은 2007. 4. 24. 투고되었으며, 2007. 5. 15. 심사가 시작되어 2007. 5. 29. 심사가 완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은교 외(2006), 『언어의 촛불들이 피어날 때(‘창작과비평’ 창간 40주년 기념
 낭송시집)』, CD-ROM, 창비.
- 귀여니(2005), 『아프리카』, 반디.
- 김남희(2001), 「매체와 현대시의 통합적 교육 가능성」, 『함께어는 국어교육』 통
 권 49호, 전국국어교사모임.
- 김대행(1998), 「매체언어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제97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
 회, pp.7-44.
- 김대행 외(2004),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출판부.
- 김동환 · 이도영 · 염은열 · 서유경(2000), 「매체언어의 소통원리와 교육적 대상
 화의 방법」, 2000년 학술 발표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창원(2001), 「국어교육과 대중가요」, 『국어교육』 104호, 한국어교육연구회.
- 남민우(2006), 『시교육의 해체와 재구성』, 역락.
- 남민우(2006), 「사이버-청소년문학의 문학교육적 의미 연구-문학교육적 비평
 의 정립을 위한 시론」, 『문학교육학』 제1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 도정일(1998), 「영상시대 문학의 힘과 가능성」, 『현대문학』 1998년 1월호, 현대
 문학사.
- 도중환(2006), 『흔들리며 피는 꽃』, 도중환 낭송시집, CD-ROM, AN'T SOUND
 CONTENTS.
- 도중환(2007), 『꽃잎의 말로 편지를 쓴다: 도중환의 시 배달』, 창비.
- 류수열(2003), 「문학교육의 외연과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의 가능성」, 『국어교
 육학연구』 제 17집, 국어교육학회.
- 류철균(2006), 「디지털 시대의 한국 현대문학」, 『국어국문학』 143호, 국어국문
 학회.
- 박운우(2006), 「대중가요의 활용을 통한 시의 화자 이해」, 『한국어교육학회 발
 표대회 자료집』, 한국어교육학회.
-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제15
 집, 국어교육학회, pp.23-54.

- 서유경(2002),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통합적 문학교육 연구」, 『문학교육학』 제 10호, 한국문학교육학회, pp.241-264.
- 서유경(2002), 『인터넷 매체와 국어교육』, 역락.
- 신범순(2000), 「사이버 시대 시의 유행적 초상과 창조적 고민의 소멸」, 『한국현대문학연구』 제8집, 한국현대문학회.
- 안정임·전경란(1999), 『미디어 교육의 이해』, 한나래.
- 오미영·정인숙(2005),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우한용 외(2004), 『신문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출판부.
- 이영미(2003), 「문학교육과 시기문학으로서의 대중가요」, 『국어교육학연구』 제 17집, 국어교육학회.
- 이용욱(2004), 『문학, 그 이상의 문학: 사이버문학론에 대한 연대기적 보고서』, 역락.
- 전국국어교사모임 매체연구부(2005), 『국어시간에 매체읽기』, 나라말.
- 전국국어교사모임 매체연구부(2005), 『매체 교육의 길 찾기』, 나라말.
- 정현선(2005), 「'언어·텍스트·매체·문화' 범주와 '복합 문식성' 개념을 통한 미디어 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 28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최경은(2005), 「핸드폰 문자메시지(SMS) 언어의 특성과 전망」, 『독일언어문학』 제27집, pp.1-16.
- 최동호·이성우(2003),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환경과 글쓰기 방법론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9호, 한국시학회.
- 최미숙(1995), 「키치와 문학교육」, 『선청어문』 23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최미숙(2007), 「언어구조물로서의 시」, 『문학의 이해』,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편, 삼지원.
- 최미숙(2007), 「매체 언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제28집, 국어교육학회.
- 최병우·이채연·최지현(2000),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매체언어의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 최인자(2002), 「다중문식성과 언어문화 교육」, 『국어교육』 109호, 한국국어교육

연구학회.

최홍원(2005), 「매체 개념과 국어교육의 가능성 연구」, 『선청어문』 제33집.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한귀은(2006), 「시와 영상의 통합적 표현 교육」, 『국어국문학』 143호, 국어국문학회.

한국 현대시 100년 기념 사업회(2007), 『시가 다시, 희망이다: 현대시 100주년 기념 시화집』, 고요아침.

스가야 아키코(2001), 『미디어 리터러시』, 안해룡·안미라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Buckingham, D.(2004), 『미디어 교육』, 기선정·김아미 역, Jnbook.

Burn, A., & Leach, J.(2004), "ICT and moving image literacy in English", The Impact of ICT on Literacy Education, ed. R. Andrew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Falmer.

Calinescu, M.(1993),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옥 외 옮김, 시각과 언어.

Darley, A.(2003), 『디지털 시대의 영상 문화』, 김주환 옮김. 현실문화연구.

Edgar, A., & Sedgwick. P.(2003), 『문화 이론 사전』, 박명진 외 옮김, 한나래.

Kanzog, K.(1996), 「매체와 문학」, 『현대 문학의 근본 개념 사전』, 백종유 옮김, 숲.

Moles, A.(1995), 『키치란 무엇인가』, 엄광현 옮김, 시각과 언어.

Poster, M.(1998), 『제2 미디어 시대』, 이미옥·김준기 옮김, 민음사.

도종환, "도종환의 시", 2006. 11. 16. <<http://poem.chart.org>>.

■ 국문초록

디지털 시대, 시 향유 방식과 시 교육의 방향

최미숙

이 연구는 미디어의 발달이 우리의 문학적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에 대해 시 교육이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전자계시판 시의 활성화, 다양한 멀티미디어 시의 시도,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 창작 시도는 그 동안 시인, 시집 중심의 시 소통 방식에 일대 전환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자도 시 소통의 주체로 서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시의 생활화'라는 시교육의 목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서 전자계시판 시를 즐겨 읽고 쓰는 생활, 그리고 다양한 영상시, 동영상시, 낭송시 등의 활성화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핸드폰 문자 시는 미디어가 시의 형식을 적극 규정하고 새로운 형태의 시 표현 및 유통 방식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디어를 활용한 시의 생활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시 교육에서는 시의 새로운 소통 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시의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좀더 의미 있는 활동을 구안하기 위한 시교육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미디어, 디지털, 매체언어, 멀티미디어 시, 전자계시판 시, 핸드폰 문자 시, 시 교육

■ Abstract

The enjoyment-method and education-direction of poetry
at the digital era

Choi, Mee-sook

This thesis discusses how we enjoy poetry at the digital era. And this thesis discusses the new direction of educating poetry at the digital era.

When we enjoy poetry the method of enjoyment is changed : the advent of bulletinboard poetry, the attempt to write various multimedia poetry, the experiment of cellphone letters poetry.

Viewing from poetry education, this variations is very important.

We have to utilize the new communication systems of poetry in order to educate poetry meaningfully. And we must draw up a plan for the poetry education of the digital era.

[Key Words] media, media language, multimedia poetry, electronic bulletin board poetry, cell-phone letters poetry, poetry education